

외교부 :

습근평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 중대 의의 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또 량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르엉 쯔잉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말레이시아 최고 원수 이브라힘과 캄보자 국왕 시하모니의 초청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캄보자를 국빈방문한다.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주요 일정 및 중국과 월남·말레이시아·캄보자간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측의 기대를 소개했다.

림검은 주변은 중국 외교의 우선 방향이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운명을 같이하는 좋은 이웃이자 좋은 친구·동반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은 중앙주변사업회의를 성

공적으로 개최해 '친성혜용'(亲诚惠容)의 주변 외교 리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주변 국가와 우호 협력을 추진하며 리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함께 발전 진흥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방문은 습근평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과 월남·말레이시아·캄보자 및 아세안 관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이끄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림검은 중국과 월남 수교 75 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은 량국 관계가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잇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중국측은 월남측과 함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동지+형제'의 량국 전통적 우의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량국 운명공동체 건설을 심도있고도 실질적으로 추진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림검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아태지역의 주요 발전도상국이자 신흥경제체이다. 이번에 습근평 주석은 12년 만에 다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량국 관계의 질적 업그레이드 추진에 중요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량국간 정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전략 매칭을 심화하며 문명 교류 참조(互鉴)를 긴밀히 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조정 협조를 강화하며 량자 관계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운명공동체 구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글로벌 사우스'(全球南方) 단결과 자강,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에 새롭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림검은 캄보자는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며 이번에 습근평 주석은 9년 만에 다시 캄보자를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량측은 중국-캄보자 관계의 위상을 새롭게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 호혜협력, 안전보장, 인문교류, 전략적 협력 등 5대 분야에서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할 것이라며 습근평 주석의 이번 방문이 중국-캄보자 운명공동체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해 량국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긍정적 성과를 더 많이 거두고 량국 인민에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월남 각계 :

중국·월남 협력의 새 성과 기대



2024년 12월 5일, 관광객들이 중국과 월남 덕천(판악) 폭포 국제관광합작구 중국 쪽에서 유람하고 있다. / 신화넷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월남 국빈방문을 앞두고 월남 각계인사들은 "량당과 량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려정에서 계속 한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며 전략적 의미를 가진 중국-월

남 운명공동체 구축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남-중국 우호협회 부회장 응우옌 룡팡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월남 재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월남과 중국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량당과 량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래 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월남-중국 운명공동체 건설을 새

/ 국제방송

국가영화국 :

미국 영화 수입 적당히 줄일 것

최근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가 미국 영화 수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영화국 대변인은 10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정부의 대 중국 관세 램용 행위는 미국 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호감도를 더욱 낮출 것이다. 우리는 시장 원칙을 따르고 관객의 선

택을 존중해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히 줄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영화시장으로 우리는 항상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견지하는바 더 많은 국가의 우수한 영화를 도입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 인민넷 - 조문판

미국의 일부 상품 '상호관세' 면제에 상무부 : 관련 영향 평가중

13일,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미국 동부시간 12일 관련 비망록을 통해 컴퓨터,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 장비, 집적회로 등 일부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미 경제와 무역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 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옛말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사건의 장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측이 국제사회와 국내 각계의 리성적인 목소리를 직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뎌 '상호관세'라는 잘못된 행동을 완전히 취소하고 상호 존중의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신화넷

미국, 일부 상품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여보고 있다. / 신화넷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11일 저녁 련방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칩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세국경보호국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5일 이후 미국에 수입된 전자제품부터 면제가 적용돼 이미 '상호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해당 조치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상 압박을 완

화하는 동시에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분석가 후세인 코베이스는 이것은 미국정부의 관세정책이 '180도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정부의 광범위하고 번덕스러운 관세정책으로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자 전 미국 부통령 펜스 등 공화당 중진들은 이를 비판했다.

/ 신화넷

미국인 절반 이상, 관세정책에 불만



3월 28일, 고객이 뉴욕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다. / 신화넷

미국인 절반 이상이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했다.

미국 퀴니피악대학교가 9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72%, 53%는 관세 부과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퀴니피악대학교 여론조사 분석가 팀 말로이는 "미국인 절대다수는 관세가 단기간내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간이 '고통을 덜어줄까'라고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 신화넷



오사카엑스포 중국관 개관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오사카엑스포)가 13일 정식 개막했다. 이날 중국관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공동체 공동 구축·록색 발전의 미래 사회'란 주제로 개관했다.

사진은 13일, 인간형 로봇이 중국관 밖에서 귀빈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 신화넷